

都市와 별 (The City and the stars)

도시 다이어슈퍼는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처럼 사막의 품안에 놓여있었다. 이 불멸의 인공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패턴화되어 거대한 메모리·뱅크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수천만명중의 일부가 물질재생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체화되어서 생활하고 있었다. 온갖 정보나 물질을 자유롭게 뽑아내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바깥 세상의 황량한 사막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시에는 영원한 하오의 햇볕이 쏟아지고 있다. 이 도시는 「영원한 황금시대」를 독차지 하면서 하나의 小宇宙인양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10억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공 알빈은 딴 주민들과는 사뭇 달랐다. 도시의 안정된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만 호기심을 갖는 소년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수천만년에 한번 꼴로 태어날 수 있는 「유니크」라는 존재였다.

「유니크」라는 존재는 특수한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류는 아득한 옛날에 은하계 전역에 건설했던 帝國이 은하계의 다른 쪽에서 온 침략자에게 무너진 후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이다.

인류는 폐허가 된 지구의 한구석에 인공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속에 은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 알빈은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난 10억년 동안에 태어난 14명의 유니크들이 모조리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알빈은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버릴 수가 없었다.



어느날 그는 도시의 외부로 연결된 터널과 캡슐주행차를 발견하고 이를 몰고 떠나갔다.

도착한 곳은 「리스」라는 마을이었다. 거기에는 다이어슈퍼와는 따로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텔레퍼디나 텔레네시스등의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알빈은 리스에서 사귄 소년 힐버와 함께 「살밀렌의 폐허」의 탐험에 나섰다. 그곳은 인류와 침략자 사이의 마지막 싸움터였다고 한다.

살밀렌은 거대한 사발모양의 바위땅이었다. 그 밀바닥의 호수에서 두 소년은 수 10억의 세포들이 거대한 해파리모양의 不定形을 이룬 포리브(群體生物)와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세눈의 소형로봇과 만났다.

포리브와의 정신교감으로 두 소년은 아득한 옛날에 일곱개의 태양 행성으로부터 포리브가 로봇트를 데리고 온 마스터라는 종교가와 그보다 앞서 은하계를 떠난 그레이트·원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것들의 정체는 알 길이 없었다.

알빈은 온갖 장해를 뚫고 로봇트를 다이어슈퍼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한다. 알빈은 로봇트

를 다이어슈퍼의 中枢에 있는 센트럴·컴퓨터와 대면시켰다.

쌍방을 대화시킴으로써 로봇의 기억회로가 열렸다. 그러나 로봇의 안속에 있는 것은 야릇한 광선과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그레이트·원들이 降臨한다」는 환상적인 이미지였으며 센트럴·컴퓨터는 마스터라는 종교가가 로봇에게 심어놓은 幻影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알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로봇에게 명령하여 그 옛날에 마스터가 타고 온 우주선을 찾게 했다. 로봇트는 마스터의 우주선 조종사로 설계되어 있었다.

우주선은 남아있었다. 사막의 밑바닥으로부터 모래언덕을 파헤치고 모래보라를 분수처럼 내뿜으면서 우주선은 모습을 드러냈다.

알빈은 힐버를 설득하여 마스터의 고향인「일곱개의 태양」으로 향한다. 超光速비행으로 하루 남짓한 사이에 우주선은 인공적으로 일곱개의 태양이 배열된 星系에 다다랐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려워했던 침략자도 문명의 흔적도 없었으며 낡은 폐허와 잠귀신들이 소란을 피운듯한 흔적만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윽고 한 행성에서 두 소년은 육체를 지니고 있지않은 순수한 정신적 존재인 「바나먼드」와 만나게 됐다. 그를 지구로 데리고 오으로써 다이어슈퍼의 주민들이 두려워했던 과거의 역사가 전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은하계 밖으로부터 온 침략자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태양계로 진출한 인류는 항성사이를 넘어서는 능력을 갖고있지 않았으나 영원한 생명과 강한 전신력을 발달시켜 은하계의 知的종족들과 친

분을 맺게됐다.

은하계의 종족들은 다시 육체적 제약에서 해방된 정신-즉, 「순수지성」을 만들어 내려고 오랜 세월을 두고 애써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은 「물질에 대해서 영원한 敵意」를 안고있는 비뚤어진 정신이었다.

이들은 여러 세기동안 은하계를 휩쓸면서 별들의 물질을 파괴했다. 그러나 우주의 끝에 자리잡고 있는 위대한 존재에 의해서 마침내는 덜미가 잡혀 검은 태양이라는 인공의 별속에 밀봉되어 버렸다. 이일이 바로 침략자의 전설로 둔갑했던 것이다.

은하계 문명은 황폐를 헤치고 일어나서 또다시 순수지성을 만들려고 애썼고 결국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것이 바로 순수지성의 幼兒 바나먼드이다.

이에 성공했을 때 우주의 끝에 자리잡은 위대한 존재와 은하계국과의 접촉이 생겨 전은하계의 종족들은 바나먼드를 남겨둔채 수많은 선단을 만들어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구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은하계로부터 떠나갔다.

이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던 인류는 지구의 한 구석에 다이어슈퍼를 건설하고 가공의 역사속으로 도망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10억년째에 지나긴 잠에서 깨어날 수 밖에 없었다. 유니크는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바깥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 설계된 존재였으며 15명째였던 알빈이 도시로 하여금 우주로 통하는 문을 열게한 것.

지구의 인류는 바나먼드를 통하여 우주의 저편에 자리잡은 위대한 존재와 접촉하려고 또다시 우주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된다.

作家와 작품

본편은 아더·C·클라크의 대표적 걸작인 동시에 1950 년대의 명작이다.

클라크는 데뷔당시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이 작품의 선구적 장편인 「은하제국의 흥망」을 탈고했다.

그러나 발상을 얻어낸 후부터 20년간에 일어난 과학의 진보로 말미암아 뜻밖의 전망과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장편을 전면 改稿한 것이 「都市와 별」(1956년)이다.

과학의 발전이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는 당시 발표된 워너의 사이버네틱스등 정보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대한 상상력을 구사하고 있다. 클라크는 영국인으로서 세이론점에서 집필중의 문명비평가이기도 하다.